



양양소식

Vol. 281

10

2018





9월 14일 양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COVER STORY



강현면 적은리 '사과랑 농원'



양양소식 · 281호

|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소식

Vol. 281

CONTENTS

희망양양

- 04 기획취재 양양에서 달콤하고 매혹적인 이브의 사과를 만듭니다. 사과랑 농원 대표 김덕우씨
- 06 ISSUE & PEOPLE
97세 양양 송천 이옥남 할머니의 30년 일기가 책으로 발간되다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이야기 조선시대 양양부사 유자한의 상소문으로 본 강원도민의 생활상

의기양양

- 10 뉴스 브리핑
10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료' 화려하고 웅장한 개막행사
- 12 제8회 양양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 13 ㈜설악산그린푸드,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 제2그린 농공단지 기업 방문
- 14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탄력'
잔교리 등 3개 마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선정
- 15 사진으로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6 의정소식
양양군의회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최

오감양양

- 18 SNS 기자단 소식 올 가을 단풍여행은 남설악 최고 단풍명소 오색 주전골로 오세요
- 19 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송이버섯가공제품
- 20 맛있는 양양여행
연어축제가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 독특한 연어축제 음식이 있다
- 22 문득, 양양 오직 양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들의 회귀본능 연어축제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시민의 교양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에서 달콤하고 매혹적인 이브의 사과를 만듭니다

사과랑 농원 대표 김덕우씨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해양성 기후, 겨울에도 관수시설이 얼지 않고 병해충이 거의 없는 양양은 사과농사의 적지

“나무에서 딴 사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과를 땅에 묻으면 거기서 싹이 나지요. 제게는 제 목숨이라는 생명과 사과라는 생명, 두 가지를 지켜야 할 숙명이 있는 거 같습니다. 늦게나마 찾은 양양이 사과 마이스터라는 꿈을 완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다가 5년 전 양양에 안착한 김덕우씨. 양양의 기후와 지역 여건이 사과농사를 짓기에 최적이라며 양양에서 사과 마이스터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과 마이스터 4호.양양은 진정한 사과 마이스터로 가는 길에 만난 행운의 땅

사과 마이스터 4호라는 명함을 가질 만큼 맛있고 이쁜 사과 만들기에 온 인생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기도 이천에서의 사과농사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락동 청과시장에서 15kg 한 상자에 25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결실도 좋고 성과도 있었으나 잦은 병해와 이상 기후 때문에 상심이 컸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30년 된 사과나무가 퍽퍽 쓰러질 때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중국 산동성장이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해준다면 땅, 자본 등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선진 사과기술을 남의 나라에 넘기는 것이 아까워 고사했다.

사과농사를 신명나게 지어 볼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사과농부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다. 경상도에 머물러 있던 사과의 북한계선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강원도에서도 정선, 화천 등지에서 재배할 정도로 사과의 경작지도는 바뀌고 있었다. 동료 사과 마이스터들의 기술과 묘목이 투입되어 조성된 북한 함경도 사과단지에서도 사과가 잘 생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도 중에서도 해양성기후 지역을 마음에 두고서 해풍이 좋은 영동지역에 땅을 구하려고 땅 구경에만 4년 세월을 보냈다. 농장에서 일하다 좋은 땅이 났다고 연락 오면 왔다 가기를 수 백 회. 양양, 속초, 고성 지역을 오가면서 낙산 바닷가 주차장에서 차에서 잠을 잔 것도 여러 번 이었다.

운명처럼 강현면 적은리 땅을 만나다

2년 안에 강릉 청과물 공판장에 최고 품질의 '양양 사과'로 안착하는 것이 목표



사과농사 지으려고 경기도 이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양양, 고성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양양지역 부동산 쪽에 어지간히 돌았던 모양이다. 부동산 대표와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사과농사 지으려고 땅 보러 몇 년째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 얘기를 꺼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열정적이라면 내 땅을 한번 소개해보라'고 하여 지금의 강현면 적은리 땅을 소개받았다. 다음날 새벽같이 내려와서 땅을 보니 첫눈에 내 농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로 계약을 마쳤다. 맘에 드는 땅을 구했다는 생각에 그로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2년간 농장 만들기에 돌입했고 3천 평에 썸머킹, 후지, 홍로 등 3종류의 사과 800그루를 심었다.

사과 농사에 최적은 연 평균기온 15도~20도인데 양양의 기후가 그러한데다, 특히 극고온과 극저온 없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당히 큰 해양성 기후라 사과 색깔이 이쁘고 당도가 높다. 양간지풍의 위력이 세긴 하지만 방풍시설을 단단히 해서 피해가 없고, 겨울에도 지하 20cm에 설치한 관수시설이 얼지 않아 연중 물 공급이 가능하다. 과수 병해충도 거의 없고 이상기후도 없어 그야말로 사과농사의 최적지다. 올해 묘목을 심은 지 3년. 처음 강릉 청과물 경매시장에 내놓은 사과는 올해 여름 고온으로 인해 굼기는 작으나 품질은 좋아 내년, 후년에는 확실한 결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양양에서의 사과농사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2년 안에 강릉 청과물 공판장에 안착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과 마이스터로서 당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요. 양양은 제게 그런 확신을 주는 곳입니다. 양양이 참 좋습니다.”

사과농사 외에 봄, 여름이면 집 앞 산에서 나물을 뜯고, 밤이면 바다에 나가 뒤늦게 배운 낚시도 하며 새로운 양양살이를 행복해하는 김덕우씨.

강원대 마이스터 과정에 강사로 출강하는 일과 양양 지역 사과 농업인들과 교류 하면서 모두가 제 값 받는 사과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

어찌 사과밭이 골프장 잔디처럼 깨끗하냐는 질문에 “제가 성격이 별나서 그런 거지요(웃음).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 결실도 좋지 않을까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글·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97세 양양 송천 이옥남 할머니의 30년 일기가 책으로 발간되다.



아흔 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쩍새가 울고 꽃이피고 달이뜨는 소박한 산촌 어머니의 삶이 풍경처럼 그려지다

1922년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서 태어나 열일곱에 지금 살고 있는 송천 마을로 시집와 아들 둘, 딸 셋을 두었다. 한글은 어깨너머로 익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서워 글을 아는 체도 못하고 살아오다가 모두 다 돌아가신 후에 도라지 판 돈으로 공책과 연필을 산다. 그렇게 쉰다섯살부터 삐뚤빼뚤한 글씨 체 좀 늘려보려고 연습 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년 넘게 쓴 일기를 모아 초등학교 교사인 손자(탁동철)가 글쓰기 모임에 글을 하나 둘 내 놓으며 동호회 차원에서 2009년 ‘깨모도 못붓고 삐뚤새 울 뻔했네’라는 제목의 문집을 내게된다. 손자는 이 문집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평생 공부한다”라는 사례로 글쓰기 강좌에 나가 사람들에게 읽어줬고 그 글에 감동한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위해 고민하던 중 인터넷 서점 마케터들이 북편딩을 제안하게 된다. 반신반의로 시작한 북편딩은 17일의 편딩기간 동안 568명이 응원에 나섰고 당초 목표액 150만원의 5배인 성금750만원을 넘으며 일기중 151편이 지난 8월 <아흔 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으로 태어났다.





자연속의 삶의 애환을 소소히 담은 이야기

맛춤법이 살짝 틀리고 사투리도 섞여있지만 그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버린다. 할머니의 일기는 항상 자연이 함께한다. 소쩍새가 울고 꽃이 피고 달이 뜬다. 시골의 자연과 마을 주민과의 소소한 이야기가 풍경화처럼 그려진다.

자식이란 무엇인지 늘 궁금하니까 늘 기다려진다.

할머니의 글에는 자식이야기 많이 나온다.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궁금한게 자식이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기만 하고, 가고나면 서운하고 안타가워한다.

「자식」

비가 오니 괜히 마음 심난해지기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막 차려서 먹으려 했는데 아들이 온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밥맛도 더욱 맛있게 먹었지.
자식이 무언지 같이 있는 게 좋고 맘도 흐뭇하고 즐겁다
한 세상 살다보면 이럴때도 있다 생각한다. (p36. 1998.4.1.)」

「막내전화」

9시50분에 전화가 온다. 막내전화다.
그래서 오랜만이다 하니까 왜 전화 할 때마다 오랜만이라 한다고 도로 나를 원망한다.
자식이란 무엇인지 늘 궁금하니까 늘 기다려진다.

(p186. 2002.2.15.)」

할머니의 글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나물캐고, 장에가서 팔고, 자식들 소식 듣고,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시골의 일상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글 한편 한편에는 진솔함과 순수함이 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곱게 간직한 순수함이 묻어나는 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봄- 투독새 소리에 마음 설레고

「산에는 얼룩 눈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들과 냇가에는 버들강아지가 봉실봉실 피어 있고 동백꽃도 몽오리가 바름바름 내밀며 밝은 햇살을 먼저 받으려고 재촉하네.

동쪽 하늘에는 밝은 해가 솟아오르고 내 마음은 일하기만 바쁘구나. 봄이 오니 제일 먼저 투독새가 우는구나. 좀 더 늦어지려는 또 제비새끼가 저 공중으로 날아오겠지. (p15. 1988.3.18)」



여름- 풀이 멍석뎌처럼 일어나니

「콩밭을 매면서 콩잎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귀엽게 생각이 든다.
그렇게 동그렇게 생긴 콩이 어찌 그리고 고 속에서 동글라한 이파리가 납작하고 또 고 속에서 속잎이 뽕뽕하게 나오고 디다볼수록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니 봄은 풀도 나한테는 고맙게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풀 아니면 내가 뭇을 벗을 삼고 이 햇볕에 나와 앉았겠나. 뭇이든지 키우기 위해 무성하게 잘 크는 풀을 뽑으니 내가 맘은 안 편하다.
뽑아놓은 풀이 햇볕에 말르는 것을 보면 나도 맘은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짐을 매고 풀을 뽑으며 죄를 짓는다.

(p73. 2007.6.12)」



가을-사람도 나뭇잎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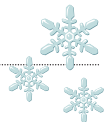
「올해도 산에 도토리 많이 떨어졌다.
날마다 도토리 까는 게 일이다. 망치로 깨서 깬다. 안 깨면 못 깬다. 반들 반들해서. 돌맹이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리는데 자꾸 뛰나가서예썬 씨팔 뛰 나가긴 왜 자꾸 뛰나가냐 하고 욕을 하고는 내가 웃었다. (p141. 2016.10.5)」



겨울- 뭇 먹고 겨울을 나느니

「오늘은 아침 열 시에 리장님 차로 양양군청에 가서 성금 십만 원 내고 열한 시에 갈천 차로 집에 왔다. 대구 지하철 화재 난 데 보내 달라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가져왔다고 하니 영수증을 보내 줄까요 해서 영수증 필요 없다고 했다.
없이 사느라고 남의 신세만 지고 좋은 일 한번 못 해 보고 그제 한이 돼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냈다.
자식 없고 얼마나 애통할까. 정신이 아찔하고 미칠 지경이지. 아침 아홉 시에 그랬으니 한창 열기가 펄펄 끓는 젊은이들 죽는 게 너무나 애석하고 사진 들여다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는 게 내가 눈물이 난다.
아이 옷 벗어 눈 걸 꺼안고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우니 사는 게 숨이 붙었으니 살지 사는 게 사는 거 같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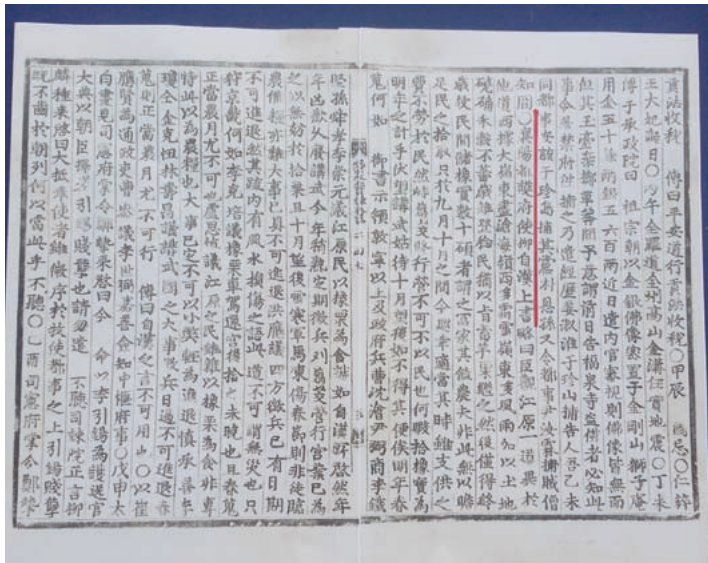
(p189. 200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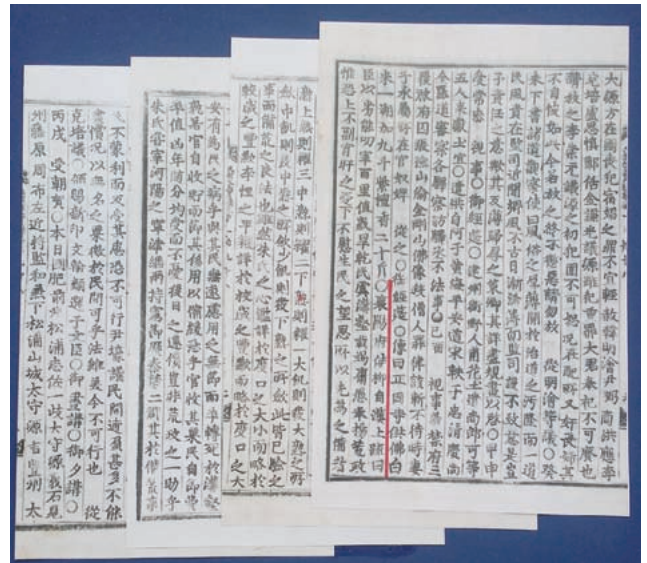
나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의 일기는 많은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다. 아흔 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 이옥남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새롭다고 한다. 맑고 소박하게 빛나는 이옥남 할머니의 일상처럼 세상 모든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반짝 반짝 빛나길 바래본다.

[본문출처] 《아흔일곱 번의 봄여름가을겨울》_이옥남 씀 양철북 출판사

조선시대 양양부사 유자한의 상소문으로 본 강원도민의 生活相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9월 11일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12월 14일 4번째 기사

【유자한부사(柳自漢府史)의 생애(生涯)】

본관은 진주(晉州). 유광보(柳光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의(柳依), 아버지는 참판 유양식(柳陽植)이다. 세조 6년(1460) 평양 별시문과(平壤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464년 경기도경차관(京畿道敬差官)과 조정의 여러 요직을 거친 후 1486년 양양부사로 재임 시 환곡(還穀)에 따른 폐단을 상소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유자한 부사는 생육신(生六臣)의 한사람인 매월당김시습(梅月堂金時習)과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죽마고우로 양양부사로 재임 시 친필 서한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다.

【백성의 사곡(私穀)을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낭비 막기를 청하다.】

성종 17년(1486) 12월 14일 4번째 기사에 유자한 부사가 양양에 부임이후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신이 무능한 자질로써 외람되게 한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려 죽을 것을 근심하여 어리석은 힘을 다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받들어 행하되, 위로는 전하의 부지런하고 근심하시는 마음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준비한 계책이 있었던 바, 감히 좁은 소견으로써 굶어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부터 의창(義倉)·군자창(軍資倉)·상평창(常平倉)을 두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법이 있으나 공사(公私)의 저축이 모두 적어서 창읍(倉邑:곡식 저장창고)의 이름만 있고 명년 봄에 종자와 양식의 수요를 일체 관대(官貸)에 의존하는 것이 상습(常習)이 되었으니 만일 적병의 경보(警報)나 수년의 재해(災)가 있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은 그 욕이 한심스러워합니다.” <.....중략>

유자한 부사는 중국의 목민심감(牧民心鑑)을 예로 들면서까지 호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부 대신들은 “백성의 사곡(私穀)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간직하여 백성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게 유리할 듯하나, 곡식을 내고들일 때에 백성에게 해

가 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중론을 모았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은 “이 법이 편리하여 유익할 듯합니다. 청컨대 우선 한 고을만 시험하여 그 편부(便否)를 시험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으며,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 또한 “이 계획은 옛사람이 시행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고금의 형편이 달라서 시행하는 데 그 적당한 길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백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유자한(柳自漢)으로 하여금 백성이 원하는가를 묻게 하여 우선 양양(襄陽) 한 고을만 시험하여 편부(便否)를 보도록 하소서.” 하자 임금께서는 우의정 이극배의 의논에 따름으로서 유자한 양양부사의 상소가 관철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후세(後世)에 전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백성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강무(講武) 연기를 상서하다.】

다음해인 성종 18년(1487) 9월 11일 2번째로 강원도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상소하였다.

“강원도(江原道)는 다른 도와 달라서 서쪽으로는 대령(大嶺)에 의거하고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서 그쳤으며, 영서(嶺西)는 서리와 눈이 많고 영동(嶺東)은 바람과 비가 많은데다가 땅에 돌이 많아서 곡식이 번성하지 못하여, 풍년이든 하더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지축(旨蓄): 겨울에 먹을 것으로 저장하는 시래기 따위] 과 감자나 밤으로 이어가고서야 겨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도토리 수십 석(石)을 저장한 자를 부잣집이라 합니다.”

“농부를 먹이는 것은 도토리가 아니면 충족할 길이 없고, 백성이 도토리를 줍는 것은 다만 9월에서 10월 사이일 뿐인데, 강무(講武)로 인한 순행(巡幸: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던 일] 으로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겨울에 도토리를 주워서 내년의 생계를 꾸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무(講武)는 우선 10월 보름 이후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 편익한 때를 얻지 못하거든 내년 봄에 행하는 사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 하였는데 임금께서 영동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와 병조(兵曹)의 의견을 듣도록 명하여 의견을 들었으나 대신들이 강무연기를 반대하였다.

반대이유는 “강원도의 백성이 도토리와 밤을 식량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유자한(柳自漢)이 아뢴 것과 같으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오래 강무(講武)를 폐지하였는데 올해에는 곡식이 조금 잘 되었고, 기한을 정하여 군사를 징발해서 꼴을 베고 행궁(行宮)을 영선(營繕)하는 일을 이미 하였으니, 밤을 줍는 데에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중략>

“강무는 나라의 큰일이고, 군사를 징발하는 기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겠습니다. 봄에는 바로 농사철에 해당하므로, 더욱이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유자한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라 하였다.

유자한 양양부사는 2회에 걸쳐 상소문을 올려 백성들의 고충(苦衷)을 덜어주려 애를 썼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강원도민의 찌든 생활상의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향토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밖에 성종 18년(1487) 9월 19일 첫 번째 기사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노공유(盧公裕)가 아뢰기를 “강원도의 백성은 오로지 도토리 · 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약 강무(講武) 때문에 그것을 주울 때를 한 번 놓치게 한다면 민생(民生)이 염려스럽습니다. 요즈음 유자한(柳自漢)의 상서(上書)에도 이것을 언급하였으니, 강무를 멈출 수 없다면 일수(日數)를 줄이소서.” 하니,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강무는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들어주지 않았으며,

성종 18년(1487) 9월 20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인종(柳麟種)이 아뢰기를 “양양 부사(襄陽府使) 유자한(柳自漢)이 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강무(講武)를 멈출 것을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도 강무는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겠으나, 일수(日數)가 너무 많으니 적당히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강무는 큰일이니,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쉽사리 앞당기거나 물릴 수 없다. 하였다.

이처럼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諫官)들까지 유자한 부사와 같은 뜻으로 주청(奏請)을 올린 사례가 있어 시사(時事)하는바가 크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강무(講武)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을 모아 일정한 곳에서 함께 사냥하며 무예를 닦던 행사. 서울에서는 사계절의 끝 무렵에, 지방에서는 봄 · 가을 두 계절에 이루어졌는데, 수렵하여 잡은 동물로 종묘사직과 지방 사직에 제사하였다.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성료’ 화려하고 웅장한 개막행사 호평



온 군민이 체전준비와 손님맞이에 참여해 첫 도 단위 종합체육행사 성공적으로 치러내
2019년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020년 강원도민체전도 차질없이 준비

‘강원도의 열정을 명품도시 양양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처음으로 개최한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임에도 3만 군민의 성원 속에 치밀한 대회 준비와 친절환 손님맞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대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양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4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체육인과 임원 8천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14일 오후 5시부터 종합운동장 한가운데 공랑 관제탑과 활주로를 형상화한 멀티스테이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이번 체전의 백미였다.

식전행사에서는 자전거동호인들이 주변 트랙을 여유 있게 돌고, 무대 위에서는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을 선보여 생활체육과 레포츠의 건강도시 양양의 면모를 과시했다.



9월14일부터 16일까지 도군 18개 시·군 선수 및 임원 8천여 명 다녀가 개막식 당일 종합운동장에 1만여 명 운집,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특수

김진하 양양군수도 자전거를 타고 입장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레인보우 치어단과 EDM DJ 도미노 보이즈의 콜라보 ‘숫아래! 양양, 행복한 울림’과 불꽃쇼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퍼포먼스와 공연을 통해 1만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현대화된 시설 인프라와 지역 생활체육인,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경기 운영 면에서도 흠 잡을 것이 없는 대회였다. 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2016년 양양읍 구교리 체육공원 일원에 5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준공한데 이어, 복합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궁도장, 테니스장 등 현대화된 체

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집적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지역의 위상과 군민 자긍심을 높였으며, 성숙된 시민의식과 친절응대로 손님맛이에 나설 수 있었다.

성공적인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생활체전 기간 대형콘도를 비롯해 양양읍 시가지와 낙산지구 등에 위치한 중소형 숙박업소가 참가선수단을 수용하면서 여름 휴가철 이후 모처럼 특수를 누렸고, 이 기간 음식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

군은 내년도 개최되는 ‘제14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2020년 개최 예정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생활스포츠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대회운영담당 Tel. 033-670-2605

제8회 양양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일반부 단체 8팀, 일반부 개인 36팀, 학생부 9팀 등 53개 팀 참여
통합대상의 영예는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을 부른 양양 송종석 씨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제8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됐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관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선 세조로부터 '악공(樂工)의 예'로 대우받은 양양 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민요 경창대회이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승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특히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를 개최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78개 단체, 695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경창대회에서는 일반부 단체와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를 통해 일반부 단체 8팀, 일반부 개인 36명, 학생부 9팀 등 전국 53개 단체가 실력을 겨뤘다. 지역별로는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32, 경기도 8, 서울 4, 인천 3, 전북 1, 경북 4, 제주도 1개팀이었다.

본선 경연 결과 통합대상(강원도지사 상)은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을 부른 강원 양양팀의 송종석씨가 거머쥐었으며 일반부 단체 최우수상은 '멜후리는 소리'를 한 제주도 '설.요.리' 팀이, 일반부 개인 최우수상은 '서도놀랑' 소리를 한 전북의 이정화씨가, 학생부 최우수상은 '노랫가락, 청춘가'를 한 강릉의 김보영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윤여준 양양 문화원장은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한다"며, "동구리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Tel. 033-670-2728



(주)설악산그린푸드,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설악산그린푸드가 2018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도내에 본사가 소재한 2년 이상의 기업 중 최근 2년간 매출규모, 재무구조 안정성, 기술·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신규 27개소와 재인증 13개소 등 모두 4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양양군 소재 기업이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주)설악산그린푸드(대표 함승우)는 양양지역에서 30년 이상 버섯·산나물류의 재배 및 판매업을 해오다 지난 2014년 9월 1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

단지에 입주, 친환경 산채가공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 매출액은 21억원 규모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13명이다. 특히 양양군과 함께 '그린푸드 가공제품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설악산 지역의 청정산채를 기반으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가공제품을 제작·판매해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즉석 곤드레 된장국'과 물에 30초 불려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곤드레, 취나물, 시래기 동결건조나물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심볼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8억원 한도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지원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 제2그린 농공단지 기업 방문

강원도 일본본부가 주관하는 '2018 GT박람회 일본바이어 팸투어단'이 지난 12일 양양군을 방문했다.

일본 바이어들은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에 소재한 설악산그린푸드와 대술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였으며, 양양군과 기업에서는 업체 소개와 생산과정 관람, 시식행사 등을 개최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2018년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설악산그린푸드는 설악산 지역의 청정산채를 기반으로 현대인에게 맞는 가공제품인 즉석 곤드레와 시래기 된장국, 우거지 해장국을 비롯해 물에 30초 불려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곤드레, 취나물, 시래기 등 동결 건조나물을 소개했다.

또 대술영농조합법인은 대표상품인 산골 자연송이와 송이고추장, 송이과자와 함께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개발한 간편죽 '대술 하이밀'을 주력 상품으로 소개했다. 이 제품은 식사대용으로 물에 바로 타 먹을 수 있는 분말 스틱형으로 쌀, 옥수수, 검정콩, 표고, 곤드레, 송이버섯 가루가 들어가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개발 특허를 받은 중금속 해독물질 'TF-343'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송이가공제품 업체인 대술영농조합법인은 오는 11월 동경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마케팅 행사에 참여해 소비자 반응을 검증 받은 후 매장 입점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으며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일본바이어 팸투어를 진행한 설악산그린푸드의 경우 즉석 곤드레 된장국 등 가공제품이 일본 수출이 확정되어 통관절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담당 Tel. 033-670-2124



C 천혜의 해안 절경,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탄력'

수산항 요트마리나 ~ 동호리(2구간) 군(軍) 작전성 검토 조건부 동의 받아

뛰어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손양면 오산리~동호리 구간에 추진 중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군은 빼어난 해안절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자원화하지 못한 손양면 오산리에서 동호리까지 4.93km 구간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산리~수산항 2.25km(1구간), 수산항 요트마리나~동호리 입구 1.48km(2구간), 동호해변 1.2km(3구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탐방로 2구간에 대한 군(軍) 작전성 검토를 최근 마쳤다.

해당 구간에는 해안 경비를 위한 경계철책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계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할부대는 지난달 22일, 탐방로 구간 내 해안경계 철책을 경관형 펜스로 대체하고, 기존의 군 경계등은 LED경관등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을 조건부 동의했다.

이 구간 경계초소 14개동 중 8개동은 즉시 철거하고, 6개동



은 경관형으로 새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경계철책 철거에 따라 중거리 감시카메라 2대를 신설한다.

또 출입자 통제를 위해 양측 출입문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탐방로 출입시간은 주간을 원칙으로 추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1·3구간에 대한 협의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해안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작전성 검토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Tel. 033-670-2725

C 잔교리 등 3개 마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선정

잔교리, 사천리, 포매리 등 3개 마을 2021년까지 20억원 투입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공모에서 현 북면 잔교리와 양양읍 사천리, 현남면 포매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북면 잔교리(2019~2021년)는 종합개발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양양읍 사천리(2019~2020년)와 현남면 포매리(2019~2021년)는 자율개발사업으로 각각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잔교리는 양양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인 쟁기동농악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 이를 계승·전수하기 위한 농악전수관과 다목적마당을 792㎡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악전수관과 이어지는 쟁기동 오솔길(600m)을 정비하고, 38도선을 따라 흐르는 마을 하천 500m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 버섯가공체험시설을 조성, 마을 자생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단호박을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천리 마을은 주민공동체 프로그램과 문화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마을회관을 2층 99㎡ 규모로 증축해 마을주민 동아리 활동 및 천연공방으로 이용하고, 마을부지 3,268㎡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래마을 단호박 축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백로·왜가리 등이 다수 서식하고, 생태가치가 우수한 포매호가 자리한 포매리 마을도 뛰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마을 안길을 조성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주민 역량 강화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안길에 2구간, 1,110m의 향토길을 조성하고, 마을회관을 143㎡ 규모로 확장해 공동급식소 및 동아리방으로 활용한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Tel. 033-670-2336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육군 102기갑여단 '차량 무사고 5,000일 달성, 금자탑 행사'
2. 후진향에서 만나는 비치마켓 양양 (9.8)
3. 양양향교에서 추기석전제가 열렸습니다. (9.12)
4. 손양 농업경영인회 김호영 회장과 회원 일동은 햅쌀 100포를 기초생활대상 가구에 전달 기탁했습니다.
5. 여름 폭염으로 고생한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양양소방서 사기진작을 위한 서핑체험 (9.13)
6. 건강 간식 드시고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여성전 1리 경로당 건강간식 만들기 (9.14)
7. 우리군 초등학생들이 축구교류를 위해 롯데소초를 방문했어요 (9.13~9.16)





양양군의회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군정질문, 2018 추경예산안, 조례안 18건 등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9월 5일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관한 군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다.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운영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심사하였으며, 특히 군정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83억 600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6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176억 6,400만원이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8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원, 조정교부금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2018년도 상반기 정례회 기간 중인 9.13(목) 1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0여 곳을 현장점검 하였다. 2018년도 추진 중인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과 인력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할 것이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 소식



주전골



용소폭포

올가을 단풍여행은 남설악 최고 단풍명소 오색 주전골로 오세요

9월 말부터 올 가을 단풍소식이 전해 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라 올 단풍예상시기와 함께 지난해 아름다웠던 남설악 오색 주전골 단풍을 보면서 기암괴석 절경과 함께 올 가을에도 아름답게 물들을 주전골 단풍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단풍이 절정이었던 이 사진은 2017년 10월 20일경 촬영한 사진으로 올해도 약 한달 후를 기대하며 미리 즐겨보고자 합니다. 오색에서 용소폭포를 왕복하는 코스는 약 6km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비교적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탐방이 가능한 코스입니다. 양양 최고의 단풍명소 주전골 탐방은 오색약수터에서 시작됩니다. 주전골 입구 오색석사를 지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단풍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며 탐방 데크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주전골 탐방 종착지는 바로 용소폭포입니다. 용소폭포는 가을 단풍철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주전골 탐방로 단풍이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주전골 입구 '오색석사'

글 · 사진 : SNS 홍보기자단 김남길

※용소폭포를 지나 약 300m정도 더 올라가면 한계령 국도와 만나게 되며 이곳에 만경대 탐방로 입구가 있습니다. 만경대 탐방은 9월 10일부터 개방되었으며,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코스로 갔던 길을 되돌아올 수 없는 코스입니다. 2018 올가을 설악산 단풍 예상 시기는 9월 28일입니다. 올가을 단풍여행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양양 오색 주전골로 오세요.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송이버섯가공제품’

사계절 송이 향에 취하다.

〈동의보감〉에서는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다. 독이 없고 맛은 소나무 냄새를 포함하고 있어서 심히 향기롭고 뛰어나다. 산중에 오래 된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의 기운에 의탁해서 생기는 것으로 버섯 중에서 으뜸이다’라 하여 버섯 중 가장 으뜸인 버섯을 단연 송이라 말하고 있다. 송이버섯은 위와 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기운의 순환을 촉진해서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거나 허리와 무릎이 시릴 때, 염증 치료 및 종양의 성장도 억제한다. 송이버섯을 섞어 밥을 지으면 송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도움으로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에도 효과적이다. 이처럼 송이는 귀한 만큼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도 좋은 식품이다.

9월초부터 10월 중순 송이 철 이외에도 사시사철 송이의 향과 쫄깃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양양 제2그린 농공단지에 위치한 대של영 농조합법인에서는 송이를 연구하고 가공하여 산골자연송이, 송이고추장, 송이과자 등 송이가공제품을 판매중이며, 최근 신규 개발한 간편 죽 ‘대של 하이밀’까지 출시되었다. 사계절 송이의 향긋함과 쫄깃함을 느끼고 싶다면 송이 가공제품을 만나 보자.

송이와 꿀의 만남 ‘산골자연송이’

달콤한 꿀과 향긋한 송이가 만나면 무슨 맛일까? 송림 속에서 채취한 자연송이를 잘게 썰어 꿀에 장기간 숙성시킨 산골자연송이는 꿀의 달콤함과 송이의 쫄깃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송이 가공식품이다. 야생화 꿀 90% 국내산 자연송이 10%를 썰어 넣어 꿀 안에 있는 송이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 스푼씩 떠먹어도 좋고 뜨거운 물에 차처럼 타서 먹으면 은은한 송이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자연송이 장아찌’ ‘자연송이고추장’

고추장과 송이가 만났다. 자연산 송이를 고추장에 장시간 숙성시킨 자연송이 장아찌는 밥반찬으로 안성맞춤이다. 따끈한 밥 한 공기, 송이 장아찌를 곁들여 따라 찢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남아있는 고추장에도 향긋한 송이향이 가득하여 쌈장이나 비벼 먹기에 딱이다.

생송이 향 고추장이 맛보고 싶다면 고추장에 송이를 잘게 썰어 숙성시킨 자연송이고추장이 있다. 고추장을 먹다보면 송이 향은 물론 잘게 썰린 송이를 씹는 재미도 있다.

온 가족을 위한 ‘송이과자’, 식사대용 간편 죽 ‘대של 하이밀’

송이과자는 자연송이를 액상으로 추출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하여 얇게 구워 만든 과자이다. 아삭 아삭하면서도 얇은 맛이 자꾸자꾸 손이 가게 만들어서 남녀노소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간식이다. ‘대של 하이밀’은 식사대용으로 물에 바로 타 먹을 수 있는 분말 스틱형으로 쌀, 옥수수, 검정콩, 표고, 곤드레, 송이버섯 가루가 들어가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개발 특허를 받은 중금속 해독물질 ‘TF-343’ 성분까지 포함하여 바쁜 아침식사 대용이나 아이들 간식으로 건강하면서 간편한 음식이다.



Tip

양양몰: 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 대של영농조합법인 <http://www.songisan.com/> (033-672-5620)

산골자연송이 110g 3병 50,000원 / 자연송이 장아찌 350g 150,000원 / 송이고추장 400g 29,000원 / 송이과자 150g 3봉 10,000원 / 대של하이밀 20g 10봉 10,000원

연어축제가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
지역음식 응용한 독특한 연어축제 음식이 있다



선홍색 마블링으로 침샘 자극하는 부드러운 식감의 연어회와 곁들인 연어알



연어쌈밥



연어덮밥



연어샐러드



양양 남대천에는 해마다 계절에 맞춰 돌아오는 3대 회귀 어종이 있다. 4월의 황어, 9월의 은어, 10월의 연어이다. 모두가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인 남대천에서 산란을 위한 마지막 숨 고르기를 하고 나면 일생을 마감한다. 수 만 년 동안 반복되는 신비한 자연현상을 사람들은 ‘모천회귀’라 한다. 이 종(種)중에서도 사람과 같은 본능으로 고향 남대천을 찾아오는 연어가 있다. 잠깐 살던 남대천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듯 3~5년 후에 연어들도 찾아온다.

하지만 사람의 직관이나 본능을 닮은 듯이 어떻게 고스란히 찾아올 수 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프랑스 산간지방 피레네에서 발견된 순록의 뺏조각에 인류 최초로 연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도 연어의 본능을 알았을까 궁금해지는 양양 남대천 연어이다.

기대해도 좋을 다양한 연어축제 음식, 연어쌈밥 · 연어갈비탕 · 연어라면 · 연어탕 · 연어알밥 등

연어는 모천회귀의 신비한 자연현상과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식품 중에서 유일한 동물성 식품으로 남대천의 보물급 어종이다. 3월의 남대천을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떠난다. 이로부터 1만 6천km를 돌아오는 동안, 한 배에 약 3,000개의 알을 품고, 상어와 비슷한 시속 45km로 빠르게 헤엄쳐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한계목을 지나 남대천에 오르면 3~5년의 일생을 마친다.

이 같은 연어의 일생과 함께하는 전 국민 연어축제가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리는데, 무엇보다 어느 축제장에서든 먹는 즐거움은 늘상 옳은 것이고, 제일의 덕목과도 같은데, 양양의 연어축제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어축제 때, 선 보였던 연어음식들 이라는 게, 지역 고유성과 특화성을 대변하기엔 다소 부족하여 오히려 연어를 주재료로 한 음식 보다 다른 음식을 더 선호하는 기현상이 되풀이되었고, 더욱이 연어축제가 아니면 지역 어느 곳에서도 전혀 맛 볼 수가 없는 아쉬움 또한 연어음식의 지속적 존재를 어렵게 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연어축제에서 선보이게 될 연어음식은 이전과는 다르다. 한식, 중식, 양식을 기본으로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맛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의 전통음식을 응용하거나 의외의 음식도 선보일 예정이다.

즐거운 연어축제 음식, 지역 대표음식으로 존속하기 바라며

지역을 포함해 동해안 어느 포구에서든 대표적 별미로 즐겨 먹고 있는 새콤한 물회를 응용한 연어 맛이 궁금하고, 한우 갈비살 대신 연어가 들어간 갈비탕 맛도 궁금하고, 매콤한 라면국물에 넣은 연어 맛도 궁금하다. 또 탕으로 끓인 연어 맛은 어떨지 궁금한 이번 축제의 연어음식들이다. 의외성이 짙어 강렬한 인상을 남길만한 음식들도 더러 있어 몹시 기대가 된다.

달밥 같은 벚꽃이 실바람에도 눈꽃처럼 퍼 붓는 봄을 따라 황어가 오르고, 땃별에 목마른 버들잎이 목을 축이는 여름물길을 따라 은빛 은어가 오른다. 천 리길을 떠났던 연어들도 몇 순배 끝에 제 고향에 단풍든 줄은 용케 알고 바다에서 이곳 남대천으로 오른다. 지나 온 세월처럼 길은 보이지 않고, 붉은 가을 이야기로 만산이 온통 붉어 질 즈음 연어축제가 열린다. 색깔은 가엽이 덜하여 말라비틀어진 가을 잎이라도, 어느 것 하나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 들여다보기 일췌인 것이 낮과 밤의 구분이 절로 없는 가을날에 연어축제가 열린다.

부디 음식이란, 헛 봉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우선이긴 해도, 단풍으로 온 산이 미치도록 곱기만 할 즈음에, 즐거워질 연어축제에서 맛 보게 될 다양하고 독특한 연어음식들이 가을바람과 가을별에 잘 익은 단풍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양양의 연어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본질의 맛이 흠뻑 느껴지는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존속하기 바래본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오직 양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들의 회귀본능 연어축제 행복UP, 추억UP,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

양양 남대천의 물줄기를 가르며 연어가 돌아온다. 5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연어들이 아련한 고향의 냄새를 기억하며 양양의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10월이면 우리도 양양의 연어축제를 즐기기 위해 양양으로 길을 떠난다.

체험여행의 1번지, 생명의 여행 양양연어축제

연어가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 남대천으로 돌아오면 연어의 생을 기리는 용왕제를 시작으로 연어를 맞이하는 즐거운 축제가 열린다.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연어맨손잡기 체험부터 즐긴다. 올해는 더 비장한 모습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본다. 쏜살같이 달리는 연어를 몇 번을 놓친 끝에 맨손으로 들어 올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연어탁본을 뜨며 우리가족의 행복을 빌어보고, 잡은 연어를 바로 손질하여 호호 불어 먹으며 행복과 추억을 쌓아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어축제 체험존과 남대천 생태존을 연결하는 연어열차에 오른다. 시원한 남대천의 바람을 맞으며 ‘놀자! 놀자! 양양의 연어랑 놀자!’ 노래를 흥얼거리다보면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 도착한다.

영상을 보고 전시장을 돌아보면 아이들은 이미 연어 박사님이 되어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에 대해 신나게 조잘 조잘 설명하고 있다.





양양에서 연어랑 놀자~! 양양연어축제 100% 즐기기

남대천 둔치에 자리 잡은 축제행사장은 지역축제답게 시끌벅적하다. 연어열차를 타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뽑내며 OX퀴즈에 참여하고, 스탬프챌리를 찍기 위해 체험부스를 뛰어다니며 연어 알받이, 연어투호 등 열심히 체험을 한다. 연어섬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커피를 즐기고, 향토음식점에서 연어음식을 맛본다. '황금연어다!' 남편이 환호한다. 포켓몬을 추억하며 축제오기 전부터 연어몬 게임에 몰두하여 드디어 황금연어를 잡았다. 덩달아 아이들도 춤을 춘다. 상품권을 받아오니 나 또한 신이난다. 가족사진을 찍고 내년에 한층 더 성장할 모습을 상상하며 느린 우체국에서 편지를 쓴다. 신선한 남대천의 바람을 즐기며 늦은 밤까지 축제장에서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해본다.



양양연어축제 2018

- 기 간 : 2017. 10. 18(목) ~ 10. 21(일)(4일간)
- 예 약 : <http://salmon.yangyang.go.kr/>
- 장 소 : 남대천둔치(양양읍 남문리 226-2)
- 참가비 : 1인 30,000원(초등학생이하 25,000)
5,000원권 상품권 지급
- 예매기간 : 9.1(토)~10.17(수)
- ※ 연어맨손잡기체험인터넷선착순접수
(전화신청은 받지 않아요)

연어맨손잡기TIP

- 행사시간 30분전에 꼭 행사장으로 와주세요~!
- 연어는 1인당 1마리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발입장은 안돼요~
- 노약자, 임산부, 유아, 음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행사를 할 수 없어요.
- 식중독예방을 위해 반드시 손질하고 날것으로 먹지마세요!

황금연어잡고 상품권 타즈아~!!!

관광어플리케이션 '연어몬'으로 연어축제 즐거움 UP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연어몬"을 검색 후
양양남대천에 서식하는 꺾지, 은어, 산천어등 34종
의 어종을 낚시해보세요.
양양의 관광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황금연
어를 잡으면 상품권까지~!!

책 이야기

“지금, 여기,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은 단순해서 추상화하면 결국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는 되도록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사실 세상은 단순하고, 미디어와 매체가 우리에게 세상의 움직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세금과 복지,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등으로 간단하게 나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추상화시키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시민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교양’ 있는 ‘시민’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전작에서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꿰뚫어낸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7가지의 현실 인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문학 지식을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인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와 연결하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그렇다면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지도 않은 채로 세금을 인상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접세를 높이는 것이다.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지음 /
웨일북 / 2015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여덟 단어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2013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13
라틴어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2017

즉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한 명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정리하면, 세금을 높여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국민 한 명당 세금을 일정하게 높여서 그것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정부나 특정 정당만 복지를 위한 증세를 말할 때, 특히 그 주어를 말하지 않을 때, 실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은 복지를 위해 부유층과 국민 전체 중 누구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각각의 방법과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p. 34)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열두 발자국

정재승 지음/ 어크로스 / 2018

이 책은 지난 10년 간 저자의 강연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12개의 강연을 선별하여 다시 집필하고 묶은 것입니다. 신기한 과학 상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을 위한 지혜가 되고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한 통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생각을 모험으로 이끄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듯 혹은 낯선 듯 보이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갇혀버리다 그가 이끄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여태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낯선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바꿔!

박상기 지음 / 비룡소 / 2018

소통의 간편함과 빠르기에 비해 진심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시대, 요즘 아이들에게 카톡 창에서 읽지 않음을 뜻하는 숫자 1에 집착하는 일은 쉬워도 그 너머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와 몸을 바꿔 복수하려던 열두 살 '마리'가 의도치 않게 엄마와 몸이 바뀌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친구, 여러 관계 속의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누구나 한 번쯤 해 볼 만한 공감 어린 상상을 새롭고 의미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설해원 골든비치리조트	50명	식음/조리/사우나/ 프론트 외	교대근무	월200만원이상
영동시스템	10명	비계공	07:00~17:00	1일 10만원이상
(주)하이테크이엔지	2명	주방기기 생산직	08:30~17:30	연2,200만원
강릉최가두부	2명	두부생산직	08:00~17:00	월180만원이상
(주)설악산그린푸드	1명	식품 품질관리자 (HACCP 경력자)	09:00~18:00	연3,000만원
(주)재성정보통신	2명	통신기기 영업사원	08:30~18:00 (주5일)	연2,400만원
	3명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경력자)	08:30~18:00 (주5일)	연3,000만원
	1명	사무원	08:30~18:00 (주5일)	연1,960만원
파머스카치2호점	2명	홀씨빙 및 계산원	09:00~20:00 (휴게시간포함)	월170만원이상 (협의)
(주)대진환경개발	1명	수질환경기사	09:00~18:00 (주5일)	연3,500만원이상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엘르 (양양국제공항호텔 내)	1명	조리원 (투숙객 조식제공)	한달 3회 휴무 (06:00~14:00)	월 180만원 이상
낙산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주40시간 (4조 3교대)	지사규정에 준함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주5일 (4조 3교대)	지사규정에 준함
(주)골든에스앤씨	14명	룸메이드	주6일 (08:30~18:00)	월 210만원
양양국제공항호텔	1명	룸메이드	주5일 (09:00~17:00)	월 160만원
송도불향꾸러미	1명	주방보조원	주6일 (매주일요일 휴무) *시간선택가능*	(09:00~14:00) 월100만원 (17:00~21:30) 월100만원 (09:00~21:00) 급여상담후
동부식당	1명	홀씨빙원	월 2회 휴무 (09:00~21:00)	월 180만원 ~ 200만원
	1명	주방보조원	파트타임으로 협의 가 능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9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8년 양양군 재정공시[결산]

- ◆ 우리 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63억원으로, 전년대비 5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 ◆ 우리 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191억원)보다 1,228억원이 적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20개 군)평균에 비해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의존재원, 공유재산은 낮은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자체수입을 더욱 증대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살림규모를 키우며,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최대영
(☎ 033-670-2110, 이메일 : jjecadea@korea.kr)

메르스 의심 시 의료기관 가지말고 1339로 전화하세요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가지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670-2504)로 전화하세요 !!!

**메르스 의심환자란?

1.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우 섭취력이 있었던 자
2.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 지역별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 조사(전체 23만명)

□ 조사시기 : '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조사내용 : 신체계측(키,몸무게) 및 혈압측정,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수채화전

□일 시 : '18. 10. 17. ~ 10. 21.(5일간)

□장 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

□주 최 : 양양수채화 동호회

〈전시 마감 후 작품은 다문화가정에 기증됩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기관·단체 임원선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투·개표를 원하십니까?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학생회나 기관·단체의 임원을 뽑는 선거,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건 채택 등 다양한 투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한 투표는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선거제도의 4대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 671-1390)로 문의바랍니다.

나만의 경력설계로 취업까지 정주행

□대 상 :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

□일 정 : 10월22일 ~ 10월26일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2시(시간조정)

□교 육 비 : 무료(고용노동부 지원)

□교육장소 : 여성회관 2층(202호)

□해택 :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수료 기념품 및 교통비 지급, 여성인턴제 우선참여,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증식쿠폰 제공

□문의 033) 670-2890~3

2금융권→은행으로, 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제2안심전환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나은 보금자리론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갈아타는 장기·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18.8.1일 기준)

대출금리 3%대! 집값의 최대 80%까지!



* 자세한 내용은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 및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안내

□ 경희의료원

□ 우대대상 : 양양군민, 양양군 출신 향우

□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 비급여 감면

□ 선택진료비(특진비/외래□입원) 10% (1회상한 50만원까지)

□ 의대병원 : 비급여 일부 10%(MRI, 초음파, 로봇수술)

□ 치과병원 : 비급여 일부 10%(양악수술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마백수술)

□ 한방병원 : 비급여 일부 15%(한약, 침 – 일부품목제외)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40%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함) – 상조 가입시 제외

※ 전산자동화로 양양군 주소인식 후에는 협약에 따른 감면내용 자동 적용됨
(단, 양양군 향우 분들은 청구 확인 필요)

□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 구비서류 : 우대 대상 확인 가능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Tel 02-958-2997/8/ Fax 02-958-2999)

□ 일산백병원(인제대학교)

□ 우대대상 : 양양군민

□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선택진료비 20%

– 비급여(일부) 10% (MRI, son(초음파))

– 종합검진비 10%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의

※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일산백병원 원무부 수납창구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의뢰서 발급(기관확인)

– 문 의 : 원무부(Tel 031-910-7456), 총무부(Tel 031-910-7515)

양양군(Tel 033-670-2213)

롯데월드 어드벤처 & 아쿠아리움 할인! 양양군 자매도시(서울 송파구) 할인혜택 안내

□ 대 상 :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 할인기간 : '18. 3. 1. ~ '19. 2. 28.

□ 할인방법 : 거주지(양양군)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우 대 율

구 분			정상가	성 수 기		비 수 기	
				우대가	할인율	우대가	할인율
어드벤처	주간 (09:30~)	어른	55,000	33,000	40%	27,500	50%
		청소년	48,000	28,800		24,000	
		어린이	44,000	26,400		22,000	
	야간 (16:00~)	어른	44,000	26,400		22,000	
		청소년	38,000	22,800		19,000	
		어린이	34,000	20,400		17,000	
아쿠아리움		어른	31,000	24,800	20%	24,800	20%
		청소년	31,000	24,800		24,800	
		어린이	27,000	21,600		21,600	

※ 성수기: 하절기 2018년 7~8월 / 동절기 2018년 12월~2019년 2월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 안내』

1. 무료 예방접종

□ 대상자 : 만 65세이상 노인 (1953.12.31 이전 출생자),

생후6개월~만12세어린이 (2006. 1. 1~ 2018. 8.31출생자)

국가유공자, 1~3급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만13세이상)

※ 만65세이상 노인, 6개월~만12세어린이는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가능

□ 접종기간

– 의료기관(65세이상노인) : '18.10. 2(화)~11.15(목)까지(기일엄수)

– 보건소 (65세이상노인)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의료기관 및 보건소 (생후 6개월 ~만12세 어린이)

: '18. 9.11(화) ~ '19.4.30(화)까지("중앙외과"초등학생만 접종)

– 보건지소, 진료소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13:00 ~ 17:00

의료기관은 점심시간 파악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급여카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반드시 지참

2. 유료 예방접종

□ 대상자 : 만13세(2007.1.10이후 출생자) ~ 만 64세까지 양양군 주소지를 둔 자

□ 접종기간 : '18.10.30(화)~ 백신소진 시까지

□ 접종시간 :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 접종장소 :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준 비 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 접 종 비 : 8,000원

□ 문 의 : 양양군보건소 ☎670-2940/ 670-2540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18년 1월 ~12월

□ 접수기간 : 3분기분 (9. 17~10.31), 읍면사무소신청

– 3분기 달라지는 사항 (방문신청에서 방문, 우편접수로, 제출서류 : 8종에서 3종, 지원신청서 서식변경)-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 원칙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제외) 사업장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 문 의 : 경제도시과 ☎033) 670-2978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9. 1. ~ 10. 31.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전년도 혼인가정으로 무주택자,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670-2162

양양에서
연어
강
놀
자!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18 양양

연어축제

The 22nd Yangyang Salmon Festival
2018 강원도 우수축제

제22회 양양연어축제

2018. 10. 18 (목)

-10.21 (일)

양양남대천둔치

축제일시 2018. 10. 18(목) ~ 10. 21(일)

축제장소 양양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

사전인터넷접수 2018년 9월 1일 ~ 10월 16일

참가신청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723, 2724

주관 양양군축제위원회 주최 양양군

<http://salmon.yangyang.go.kr>

양양군

